광주 명물 무등산수박 명맥 살리기 나선다

광주시, 2025~2027 '무등산수박 육성 계획' 수립···직판장 시설 개선·품종 안정화 기술 시범사업 등

광주 대표 특산품인 '무등산수박' (일명 푸랭이) 작황에 빨간불이 켜지자 광주시가 대책마련에 나섰

수익성이 떨어지고 기후위기로 재배가 어려워 농 가가 줄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무등산수박이 역사 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품종 안정화와 직판장 리모델링 등 명맥잇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광주시는 무등산수박 보존과 명맥 유지를 위한 '광주 대표 특산물 무등산수박 육성 계획(2025~ 2027년)'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육성 계획은 지난해 4월에 꾸린 '무등산수 박 육성 TF팀'의 진단과 제언을 토대로 마련됐다.

'임금님 진상품'으로 불리던 무등산수박은 기후 위기와 맞물려 품종이 약해지고 재배기술 개발이 거의 없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농가 수도 감소 하고 있다.

2010년 2900통의 출하량을 기록했던 무등산수 박은 2018년 2300통으로 감소했고 2023년 1850 통으로 대폭 줄었다.

생산규모도 2010년 16개 농가(4.3ha)에서

2018년 11개 농가(3.1ha)로 줄다가 지난해 9개 농 가(2.6ha)까지 줄었다. 올해도 한 가구가 수박 농 사를 포기했다.

농가들은 "기후위기 여파로 무등산수박 재배는 물론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

광주시는 우선 무등산수박 생산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4개의 신규 사업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무등산수박은 평(3.3㎡)당 소득이 3만 5875원 인 일반 수박에 비해 2만 4500원의 낮은 소득을 보 이고 있다. 시는 평균 m²당 770원인 생산단가를 1950원으로 3배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990년대 가건물 형태로 세워진 북구 금곡동 무 등산수박 직판장 시설도 보수한다. 그동안 직판장 에는 고객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노후해 불 편을 초래했다.

시설개선은 광주호수생태원의 방문객을 직판장 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직판장으로부터 1.5km가량 떨어진 광주호수생 태원의 방문객은 지난해 기준 28만 3750명에 달

직판장 방문 구매 비율도 전체 판매액의 95%이 상을 차지한다.

광주시는 2025년 화장실 보수와 대기공간을 만 들고 출입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냉방 시설과 가공식품 진열공간을 조성한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과실의 품질 약화와 변형 을 예방하기 위한 채종(농작물의 종자를 채취하는 기술)과 수정 기술도 시도한다. 그동안 품종개량 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무더위와 잦은 비 등 기후위기를 이겨내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접목재배를 시도한다.

지금까지는 농가가 개별 자체적으로 종자를 선 발해 과실의 형질이 균일하지 않았고 한 개체의 암 •수 교배 방식을 활용하다보니 과실의 품질이 약화 되고 변형되는 문제도 있었다.

무등산수박에 고온기에 유리하고 관리가 어렵지 않은 '호접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접목재배를 통 해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난 개체 생산을 위한 접목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로, 사전에 설정해둔 권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위기 상황 시 경찰 등에 SOS 긴급

광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 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수급자 중 배회 감지기 이용자 비율은 2019년 5.1%에서 올해 6월

전남은 2019년 1.8%에서 올해 0.9%로 절반 수

준으로 줄어들었다. 치매 환자는 급격히 늘고있는

반면 배회감지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늘지 않고 있

장 의원은 "치매 환자 실종은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배회감지기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

호출을 할 수 있는 장치다.

기준 2.8%로 줄었다.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무등산수박 재배가 한창인 지난 8월 무등산수박 재배 농민들이 수박을 수확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치매환자 느는데 배회감지기 이용 줄어

광주·전남 지난해 실종신고 677건…감지기 이용률 1.8% 불과

광주·전남에서 지난해 677건의 치매환자 실종신 고가 접수됐지만, 치매환자 실종을 막기 위한 '배회 감지기' 이용률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 갑) 의원이 경찰청과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 년(2019~2024년 7월)간 광주·전남에서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총 3836건 접수됐다.

광주는 2019년 367건, 2020년 359건, 2021년 401건, 2022년 406건, 2023년 417건, 올해 7월까 지 275건의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전남 의 경우 2019년 338건, 2020년 340건, 2021년 298건, 2022년 272건, 2023년 260건, 올해 7월까 지 103건이 접수됐다.

매년 광주에서 390건, 전남에서 301건의 치매환 자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광주와 전남에서 하루에 한명 꼴로 치매환자가 실종되는 셈이다.

반면 치매환자 실종을 막기 위한 광주·전남 배회 감지기 이용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세다. 배회감지 기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위치추적기

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래복합 지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학은 연산과정에 시간이 많이 드는 문항이 많 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

영어는 긴 지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난도 가 높은 문장 삽입 문항에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를 배치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문장을 의역해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항도 있으므로 깊이 있는 독해 능력도 중요하다.

탐구영역은 과목별로 요구하는 중요한 개념을 정 확하게 파악하고,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한 문제 적 응력이 중요하다. 사회탐구는 '보기'에 있는 보충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며, 과학탐구는 과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술 취해 구급대원 뺨 때린 50대 남성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는 이날 자정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경 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은 "길거리에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 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 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 광주문화신협

수능 D-30 "학습내용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을"

"최근 수능 기출 문제를 익히고 EBS 수능 연계 교재 학습을 반복하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2025학 년도 수능시험을 31일 앞둔 14일 수험생 마무리 학 습 전략을 제시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다양한 입시 변수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정시 수능등급 확보가 더 욱 중요해진 만큼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세워 준비 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오답노트를 활용해 반복하는 실수를 줄여 야 한다. 새 문제를 공부하기보다는 단골 출제되는 문항과 자신이 실수했던 문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둘째, 킬러문항 배제 이후 정교하고 복잡해진 선 택지(매력적인 오답)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출제 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선택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

셋째, 수능 시간표대로 일과를 구성해 실전 감각 을 유지하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와 정해진 시 간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시교육청과 진학부장협의회는 수능시험 영역별 마무리 학습법도 소개했다.

국어는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선택지를 확인하고 독서 주제통합 지문과 문학 갈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ㆍ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본 • 여신사업부 ・각화지점